Market Talks
교육 센터

외환 · 초급 · 15강 중 12강

리스크 관리 기초

어떤 단일 거래보다 계좌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이유, 손절에서 모든 포지션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손익비, 연속 손실, 상관관계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읽는 시간 12분 퀴즈 8문항, 정답 포함

외환 · 초급 · 15강 중 12강

리스크 관리 기초

한 문장 요약

리스크 관리는 트레이더가 실력을 쌓을 만큼 오래 살아남을지를 결정합니다. 핵심 규칙은 간단합니다. 거래마다 계좌의 작은 고정 비율, 보통 1%에서 2%만 리스크로 삼고, 손절은 아이디어가 틀리는 곳에 두며, 포지션 크기는 그 손절에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합리적인 손익비와 총 리스크 한도를 더하면, 어떤 단일 거래나 연속 손실도 계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인 이유

모든 거래에서 이기는 전략은 없습니다. 좋은 트레이더도 거래의 절반 정도만 이기는 경우가 많고, 누구나 연속 손실을 겪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트레이더와 그렇지 못한 트레이더를 가르는 것은 대개 진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틀렸을 때 얼마나 잃느냐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떤 단일 거래도, 흔히 있는 불운의 연속도 계좌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면 배우고, 나아지고, 좋은 전략이 효과를 낼 시간을 얻습니다. 초기에 계좌의 큰 부분을 잃으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의는 앞선 강의의 개념을 한데 모읍니다. 핍 가치(4강), 손익(5강), 레버리지와 증거금(10강), 손절 주문(11강)입니다.

손실은 보이는 것보다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손실과 그것을 만회하는 데 필요한 이익은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계좌의 10%를 잃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 11.1%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20%를 잃으면 25%가 필요합니다. 50%를 잃으면 본전이 되기 위해서만 남은 돈을 **두 배**로 불려야 합니다. 80% 손실 뒤에는 400%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산수지만, 전문 트레이더가 손실을 작게 유지하는 데 그토록 신경 쓰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작은 손실은 쉽게 회복됩니다. 큰 손실은 회복에 몇 년이 걸리거나 트레이딩 경력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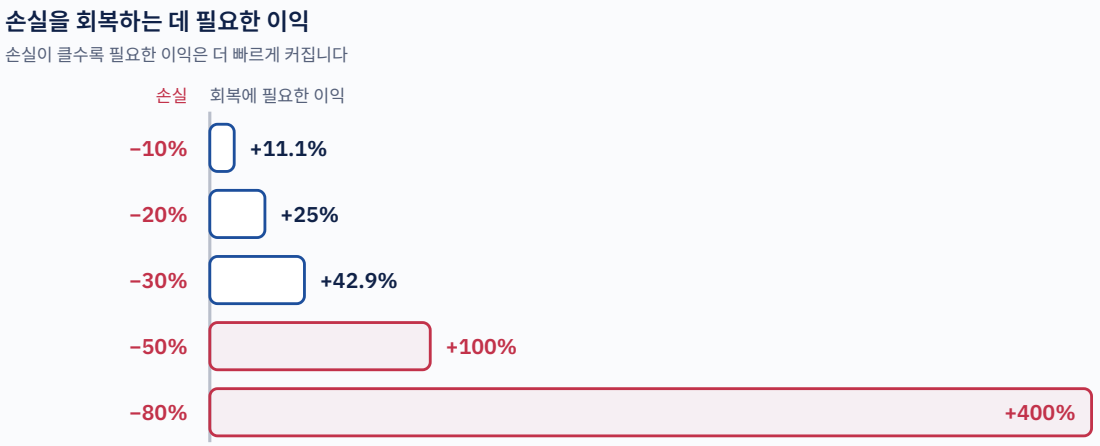


그림 1. 회복에 필요한 이익은 손실보다 훨씬 빠르게 커집니다. 손실을 작게 유지하면 회복도 쉽습니다.

계좌의 작은 고정 비율만 리스크로

트레이딩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규칙은 거래마다 계좌의 작은 고정 비율만 리스크로 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 특히 초보자에게 이는 **1%에서 2%**를 뜻하며, 많은 전문가는 그보다 적게 씁니다.

여기서 "리스크"는 포지션 크기가 아니라 손절에 걸렸을 때 잃는 금액을 뜻합니다. 계좌가 5,000달러이고 1% 규칙을 쓰면, EUR/USD든 금이든 무엇이든 한 거래에서 잃는 금액은 최대 **50달러**입니다.

고정 비율에는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손실이 작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므로, 어떤 단일 거래도 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또 금액이 퍼센트이므로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계좌가 커지면 거래당 리스크도 커지고, 계좌가 줄면 리스크도 함께 줄어 나쁜 시기에 피해가 커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포지션 사이징: 가장 중요한 계산

얼마까지 잃을 수 있는지와 손절을 어디에 둘지 알면, 알맞은 포지션 크기는 바로 나옵니다.

랏 = 리스크 금액 ÷ (핍 단위 손절 거리 × 랏당 핍 가치)

Anna의 계좌는 5,000달러이고, 1%인 50달러를 리스크로 삼습니다. Anna는 진입가보다 25핍 아래에 손절을 두고 EUR/USD를 매수하려 합니다. EUR/USD에서 스탠다드 1랏은 1핍당 10달러입니다(4강). 따라서 포지션 크기는 $50 ÷ (25 × $10) = **0.20랏**입니다. 손절에 걸리면 25핍 × 핍당 2달러 = 50달러, 정확히 계좌의 1%를 잃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Anna는 감이나 자신감, 증거금이 얼마나 있는지로 랏 크기를 고르지 않습니다. 랏 크기는 리스크 규칙과 손절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많은 브로커와 웹사이트가 이 계산을 대신해 주는 포지션 크기 계산기를 제공하며, USD/JPY나 EUR/GBP처럼 핍 가치가 달러가 아닌 통화쌍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그림 2. 포지션 크기는 계좌 크기, 리스크 규칙, 손절 거리, 핍 가치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예시: 크기를 정한 뒤 레버리지 확인하기

1.0850에서 Anna의 EUR/USD 0.20랏은 21,700달러 규모의 포지션입니다. 레버리지 1:30에서는 약 723달러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실효 레버리지는 $21,700 ÷ $5,000, 약 4.3배입니다(10강). 증거금 수준은 약 690%에서 시작하므로 마진콜과는 거리가 멉니다. 리스크에서 포지션 크기를 정하면 레버리지는 대개 저절로 적정한 수준에 머뭅니다.

손절이 먼저, 크기는 그다음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손절을 금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20핍 정도면 적당해 보이니 20핍을 걸자" 하는 식입니다. 손절은 시장이 거래 아이디어가 틀렸음을 보여 주는 곳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지지나 저항 수준 바로 너머, 또는 최근 고점이나 저점 너머입니다. 이런 기술적 수준은 중급 과정에서 다룹니다.

손절을 알맞은 곳에 두면, 리스크 금액이 같게 유지되도록 포지션 크기를 조정합니다. 차트상 손절이 25핍이 아니라 50핍 떨어져야 한다면 크기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50 ÷ (50 × $10) = 0.10랏입니다. 손절에 걸렸을 때의 손실은 여전히 50달러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절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가 같은 금액의 리스크를 집니다. 크기만 조정하면 넓은 손절이 좁은 손절보다 더 위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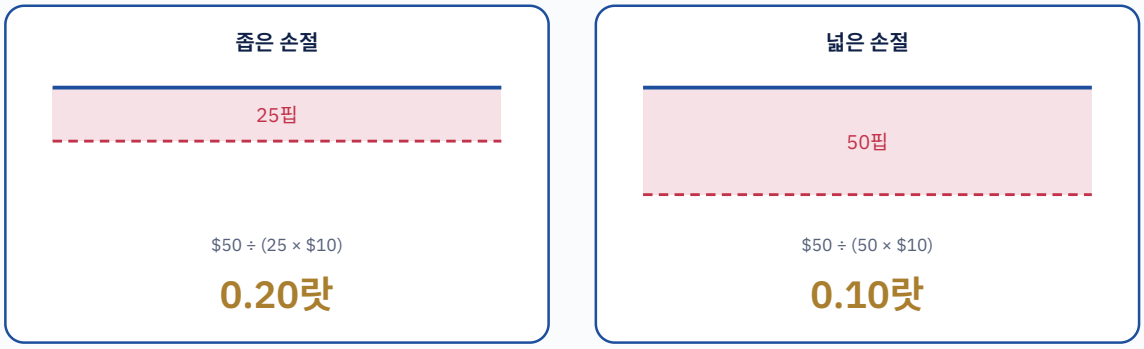


그림 3. 리스크 금액은 같고 손절 거리만 다릅니다. 손절이 넓을수록 포지션은 작아집니다.

손익비와 승률

5강에서 자주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실에 비해 이익이 얼마나 큰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트레이더는 이를 **손익비**(risk-to-reward ratio)로 나타냅니다. 거는 리스크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뜻합니다.

손절 25핍, 목표 50핍인 거래의 손익비는 **1:2**입니다. 1%를 걸고 이기면 2%를 법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을 빼기 전, 본전이 되는 데 필요한 승률이 달라집니다.

- 1:1에서는 거래의 50%를 이겨야 합니다.
- 1:1.5에서는 약 40%가 필요합니다.
- 1:2에서는 약 33%가 필요합니다.
- 1:3에서는 25%면 됩니다.

그렇다고 목표가 클수록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먼 목표는 덜 자주 도달하므로 승률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균형입니다. 시장이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와, 리스크보다 분명히 큰 보상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는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 1:1.5나 1:2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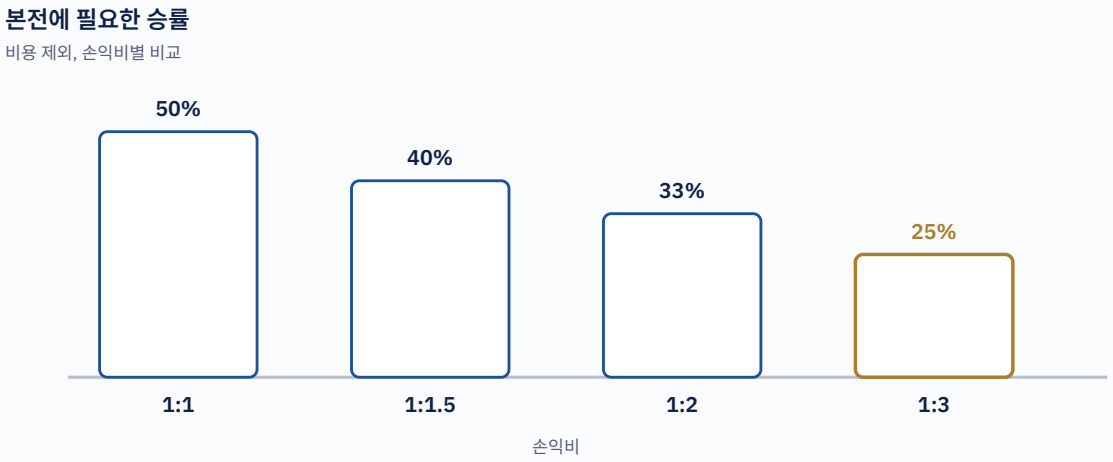


그림 4. 리스크에 비해 보상이 클수록 본전에 필요한 승리 횟수가 줄어듭니다.

연속 손실에 대비하기

연속 손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의 평범한 일부입니다. 50%의 확률로 이기는 전략도 언젠가는 여덟 번이나 열 번 연속으로 집니다.

열 번 연속 손실이 계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 거래당 **1%**를 걸면 계좌는 약 10% 줄어듭니다. 아프지만 회복하기 쉽습니다.
- 거래당 **5%**를 걸면 약 40% 줄어듭니다.
- 거래당 **10%**를 걸면 약 65% 줄어들고, 회복하려면 거의 190%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세 경우 모두 전략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거래당 리스크뿐입니다. 리스크를 작게 유지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트레이더가 겪는 나쁜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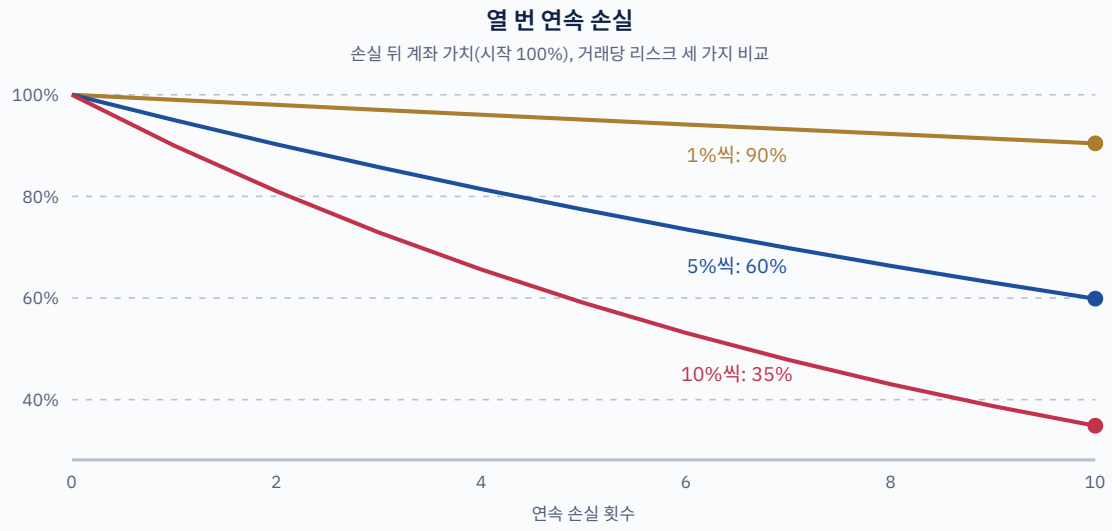


그림 5. 같은 열 번의 손실 거래를 세 가지 거래당 리스크로 비교했습니다. 리스크가 작으면 연속 손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총 리스크, 상관관계, 일일 한도

거래당 리스크가 전부는 아닙니다. **총 오픈 리스크**(total open risk)도 중요합니다. 열린 거래가 모두 손절에 걸렸을 때 잃게 될 금액의 합계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는 이를 계좌의 약 3%에서 5%로 제한합니다.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통화쌍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UR/USD, GBP/USD, AUD/USD를 동시에 각각 1%씩 걸고 매수하면, 실제로는 3%를 건 미국 달러 하락 베팅 하나를 한 셈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세 거래가 함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2강).

간단한 개인 한도를 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나 3%를 잃거나 세 번 연속으로 지면 그날 거래를 멈추는 식입니다. 나쁜 거래일은 대부분 첫 손실 이전이 아니라 이후의 결정 때문에 더 나빠집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일지**(trading journal)가 있습니다. 진입, 손절, 목표, 크기, 결과, 그리고 그 거래를 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리스크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하게 믿을 만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양식은 15강에서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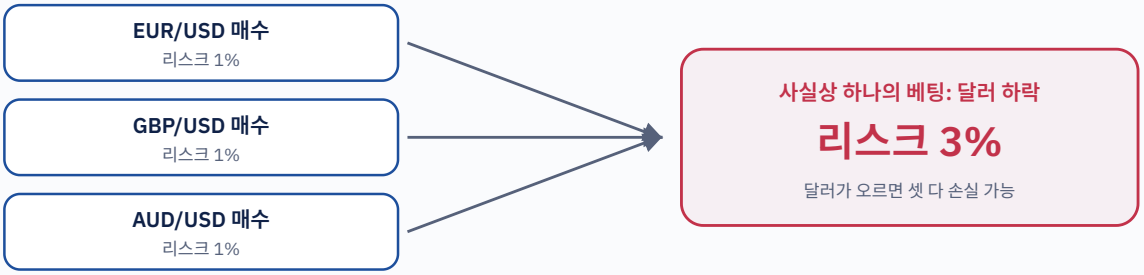


그림 6. 같은 방향으로 연 달러 통화쌍 거래 세 개는 사실상 하나의 더 큰 베팅입니다.

트레이더에게 왜 중요한가

- **거래당 리스크는 정해 두고 지키는 규칙입니다.** 초보자에게는 흔히 1%가 출발점으로 쓰이며, 이를 적어 두는 트레이더도 많습니다.
- **손절은 아이디어가 틀리는 곳에 두고, 크기는 그다음에 계산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지 않으며, 손실을 피하려고 손절을 더 멀리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리스크보다 분명히 큰 보상**, 그리고 그 목표가 해당 통화쌍과 타임프레임에서 현실적인지가 중요합니다.
- **금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며,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XAU/USD에서 1달러 움직임은 1랏당 100달러이며(4강), 손절은 보통 달러 기준으로 더 넓습니다. 금 자체의 포인트당 가치로 같은 공식을 쓰면 포지션 크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핵심 용어

거래당 리스크	거래의 손절에 걸렸을 때 잃는 금액으로, 보통 계좌의 퍼센트로 정합니다.
포지션 사이징 (position sizing)	손절에 걸렸을 때의 손실이 계획한 리스크와 정확히 같도록 거래 크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손절 거리	진입 가격과 손절 사이의 핍 수입니다.
손익비(risk-to-reward ratio)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생길 수 있는 이익과 비교한 값으로, 예를 들어 1:2입니다.
손익분기 승률	주어진 손익비에서 돈을 벌지도 잃지도 않으려면 이겨야 하는 거래의 비율입니다.
드로다운(drawdown)	계좌 가치가 최고점에서 떨어진 정도입니다.
연속 손실	손실 거래가 연달아 이어지는 것으로, 어떤 전략에서나 흔히 있는 일입니다.
총 오픈 리스크	열린 거래가 모두 동시에 손절에 걸렸을 때의 손실 합계입니다.
상관관계(correlation)	두 통화쌍이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입니다.
매매 일지(trading journal)	모든 거래의 계획, 결과, 이유를 적은 기록으로, 거래를 돌아보고 개선하는 데 씁니다.

핵심 정리

1. 손실은 보이는 것보다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50% 손실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100% 이익이 필요합니다.
2. 널리 쓰이는 규칙은 거래마다 계좌의 작은 고정 비율, 보통 1%에서 2%만 리스크로 삼는 것입니다.
3. 포지션 크기 = 리스크 금액 ÷ (핍 단위 손절 거리 × 랏당 핍 가치)입니다. 손절은 차트로 정하고, 그 다음 거래 크기를 정합니다.
4. 손익비가 높을수록 필요한 승률이 낮아집니다. 1:2에서는 세 번 중 한 번 정도 이기면 본전입니다.
5. 연속 손실에 대비하고, 총 오픈 리스크를 제한하고, 상관된 통화쌍은 하나의 베팅으로 보고, 매매 일지를 쓰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실력 점검

각 문제에 답을 하나씩 표시하세요. 해설이 포함된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markettalks.info에서 온라인으로 퀴즈를 풀고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계좌가 50% 손실을 봅니다. 시작 금액으로 돌아가려면 몇 퍼센트의 이익이 필요한가요?

- A 50%
- B 75%
- C 100%
- D 150%

2. 5,000달러 계좌에 1% 리스크 규칙을 쓰면, 한 거래에서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 A $5
- B $50
- C $500
- D $1,000

3. 리스크 금액은 50달러, 손절은 25핍 거리이고, EUR/USD 스탠다드 1랏은 1핍당 10달러입니다. 포지션 크기는 얼마인가요?

A 0.02랏
B 0.20랏
C 2.00랏
D 0.50랏

4. 차트상 손절이 25핍이 아니라 50핍 떨어져야 합니다. 같은 리스크 금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크기를 그대로 둔다
B 포지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다
C 포지션 크기를 두 배로 늘린다
D 그래도 손절을 25핍에 둔다

5. 손절 30핍, 목표 60핍인 거래가 있습니다. 손익비는 얼마인가요?

A 1:1
B 1:2
C 2:1
D 1:3

6. 손익비 1:2에서 비용을 빼기 전, 본전이 되려면 승률이 대략 얼마여야 하나요?

A 약 25%
B 약 33%
C 약 50%
D 약 67%

7. 매번 1%씩 걸고 열 번 연속 손실을 보면 계좌는 대략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약 1%
B 약 10%
C 약 40%
D 약 65%

8. EUR/USD, GBP/USD, AUD/USD를 각각 1%씩 걸고 매수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요?

A 위험은 없다, 리스크는 서로 별개다

B 세 거래는 사실상 약 3%를 건 미국 달러 하락 베팅 하나다

C 브로커가 그중 두 개를 닫는다

D 스프레드가 합쳐서 3%가 된다

정답 및 해설

1 C

100%

50% 손실 뒤에는 돈의 절반이 남으므로, 시작 금액으로 돌아가려면 두 배, 즉 100% 이익이 필요합니다.

2 B

$50

5,000달러의 1%는 50달러입니다. 손절에 걸렸을 때의 계획된 손실입니다.

3 B

0.20랏

랏 = $50 ÷ (25 × $10) = $50 ÷ $250 = 0.20랏입니다.

4 B

포지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다

손절 거리가 두 배가 되면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야, 손절에 걸렸을 때의 손실이 같게 유지됩니다.

5 B

1:2

30핍을 걸고 60핍을 노리므로 보상이 리스크의 두 배, 즉 1:2입니다.

6 B

약 33%

2단위 이익 한 번이 1단위 손실 두 번을 메우므로, 세 번 중 한 번, 약 33%를 이기면 본전입니다.

7 B

약 10%

각 손실은 남은 금액의 1%이므로, 열 번 손실 뒤에는 계좌의 약 90.4%가 남습니다. 약 10% 줄어든 것입니다.

8 B

세 거래는 사실상 약 3%를 건 미국 달러 하락 베팅 하나다

이 통화쌍들은 달러에 대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세 거래가 동시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CME Group, 거래와 리스크 관리: 알맞은 포지션 크기: https://www.cmegroup.com/education/courses/trade-and-risk-management/proper-position-size.html
- CME Group, 거래와 리스크 관리: 2% 규칙: https://www.cmegroup.com/education/courses/trade-and-risk-management/the-2-percent-rule.html
- IG, 외환의 핍(포지션 사이징을 위한 핍 가치): https://www.ig.com/uk/forex/fx-need-to-knows/pips-in-forex

Market Talks

계속 학습하기

다음: 13강
금(XAU/USD): 통화와 함께 거래되는 방식

이 강의는 MARKET TALKS 교육 센터의 외환 과정에 속합니다. 초급 강의는 무료이며 강의마다 퀴즈와 다운로드 가능한 PDF가 제공됩니다. 중급과 고급 강의는 회원 전용입니다.

교육 센터
기초 원리부터 고급 주제까지 다루는 강의

시장 분석
주요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리포트
비트코인, 금, 은, SPX 등

markettalks.info

텔레그램 @MARKET_TALKS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 2026 MARKET TALKS. 이 PDF는 수정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